

#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에 나타난 타국가와의 협력과 충돌의 경험

*(Experiences of collision and cooperation depicted  
in the novels published in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Shin Yeong-deok, Air force Academy*

## 차례

- I. 서론
- II. 타국가와의 협력 경험 재현 양상
  - 1. 남한과 미국
  - 2. 북한과 중국
- III. 타국가와의 충돌 경험 재현 양상
  - 1. 남한과 중국
  - 2. 북한과 미국
- IV. 결론

## I. 서론

남한과 북한은 미소 냉전의 대리전으로도 평가되고 있는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 소련, 중국 등과 협력하거나 충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진영과의 협력을 통해 전쟁을 일으켰으며, 남한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과의 협력을 통해 이에 대항하였다. 3년여에 걸친 한국전쟁은 남북한에 세계대전적 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를 남겨주었으며, 이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제도와 문화의 현실태를 배태한 역사적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군사 혹은 정치 외교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전쟁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전쟁기에 발표된 남북한 소설에는 외국인이 많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소련인 등이 특히 많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일본인과 소련인은 대체로 전쟁 이전의 시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전쟁 시기와 관련해서는 미군과 중국군이 작품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국가가 보다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주로 남한과 북한이 미국, 중국 등과 어떻게 협력하고 충돌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에서는 어떻게 재현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타국가와의 협력 경험 재현 양상

### 1. 남한과 미국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에 의한 남한 침공이 이루어지자 미국은 즉시 유엔 안보이사회 개회를 요청하였고, 안보이사회는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되었다.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안보이사회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미국은 개전 5일째에 전면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7월 14일에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참모총장의 제안으로 한국군의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 즉 미군 사령관에게 인도한다는 서간을 매카서에게 보냄으로써 한국군과 미군은 유엔군이 되어 서로 협동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전쟁 당시 발표된 남한 소설은 대부분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전쟁은 남한 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미국에 대한 남한 소설의 태도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한국을 도와준 고마운 나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유학하러 가고 싶은 선진국 등으로 미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작품도 많지만, 일부 작품들은 성매매 여성을 상대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미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장덕조의 장편소설 <<십자로>> (문성당, 1953)는 미국을 긍정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1949년 3월 16일부터 12월 중순까지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 시기에는 남로당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미특위대 해산, 농지개혁법 공포, 김구 피살 등의 주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이와 같은 현실보다는 남녀간의 애정 갈등 문제에 치중하면서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에 대한 이 작품의 태도이다. 이는 어학능력과 미모가 뛰어난 주인공 이영란과 결혼하게 되는 최한직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이영란이 다니는 회사의 전무인 최한직은 해방 후 미국에서 돌아온 ‘젠틀맨’으로서, ‘미스터·민주주의’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스마트’하고 친절한 남성이라는 이야기, 결국 이영란은 여러 남자 중에서 최한직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떠난다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참다운 민주주의 씨를 받아다 한국 땅 위에 찬란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줄 것’을 영란에게 부탁하는 오은희의 편지 내용 등은 그 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해방 이후 남한 사회에는 이와 같이 미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는 담론들이 유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박영준의 장편소설 <<열풍>>, 곽하신의 <여비>, 안수길의 <갱생기>, 이무영의 <0형의 인간> 등 많은 작품들이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기 남한에서는 동맹군인 미군을 부정적으로 재현한 작품도 발표되었다. 이 중에는 미군과 성매매 여성의 관계를 다룬 작품이 많은데, 유주현의 <기상도> ( 전선문학 4, 1953.4)는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 기상이 나빠 착륙이 지연되자 비행기 안에서는 논쟁이 일어난다. 토건업자인 ‘신사복’과 ‘매춘부’는 불평을 토로하고, 상이군인은 조종사를 믿자고 한다. 이때 ‘C대령’은 비바람이 심한 까닭에 무전이 통하지 않아 비행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낙하산을 나누어주고자 한다. 그런데 낙하산이 모자라자

미군은 자기의 것과 ‘매춘부’의 것으로 두 개를 먼저 집어간다. 그러자 ‘C대령’은 ‘매춘부’의 것을 빼앗으며, ‘레이디 화스트’를 주장하는 미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미군과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여성에 대해 경멸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미국의 문물과 함께 들어와 당대에 유행하던 ‘레이디 화스트’와 같은 서구적 담론을 비판한다.

「그것은 당신 나라의 예절이지만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매춘부보다는 한 사람의 장정의 목숨이 더 소중하외다.」 [중략] 「예절 예절 하지만 우리 동양의 예절은 양보 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이오. 당신이 순서 있는 행동을 했으면 이 남자들 중에서 누구 하나가 양보해서 그 여자에게 낙하산을 주었을 것이외다.」

박연희의 <소년과 「메리」라는 개> ( 문화세계 1, 1953.7)는 소년의 눈을 통해 미군의 인종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은 전쟁 중 다친 한국 사람은 치료하지 않고 <메리>라는 개만 치료하는 흑인 병사의 모습을 통해, 백인에게 열등감을 지니고 있는 흑인조차 우리 민족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경시하고 있음을 소년과 엄마간의 대화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엄마, 아까 저기 올 때 사람이 넘어져 있지 않음? 그건 어찌 약 발라주지 않소?」

「이제 발라 주겠지…」

「감안 양코백인 「메리」가 더 귀한 모양이지요?」

이처럼 한국전쟁기 남한 소설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의 경험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동맹군인 미군을 성매매 여성과 연관시키기도 하고, 인종차별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인물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남한 사회에 서양, 특히 미국 문화의 범람과 함께 들어온 제 담론이 지배자적인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지만, 이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식도 적지 않았음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북한과 중국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은 작가들에게 “조쏘 조중 친선을 비롯한 국제 친선 사상을 테마로 한 작품”을 창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작가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문학에 있어 국제주의 사상은 기본적인 테마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해방과 원조의 은인인 위대한 쏘련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써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고무 격려하여 주었다.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 밑에 중국 인민들은 인민 지원군을 직접 조선 전선에 파견하여 주었으며 그들은 전선과 후방에서 전고 미문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우리 인민 군대와 함께 공화국의 존토를 피로써 고수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후방 사업을 적극 협력하여 주었다.

대부분의 북한 문학사에서는 이러한 주제의 대표작으로 윤시철의 <나의 옛 친우> (1951)를 들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안함광은 이 작품이 원썩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조중 양국 인민의 혈연적 관계를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적인 사건과 그 가운데서의 구체적인 인물 형상을 통하여 표현하였다고 하여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그리고 조선문학통사 에서는 이 작품의 내용과 특성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중국 동북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조중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을 체험한 조주의 두 소년 <윤>과 주양이 그로부터 근 20년이 지난 오늘 미제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 전선에서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감동적인 서정적 색채 가운데서 이야기되었다. 어렸을 때에 어깨동무였던 두 소년이 그 후 서로 잊지 못할 친우로 그리워하면서도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두 사람 다 끝끝한 청년으로 자라나 한 사람은 지원군 경찰대로, 한 사람은 인민군 군관으로서 뜻밖에도 가렬한 전투 마당인 동부전선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는 우연적이면 우연적이기도 하면서 우연 아닌 필연적인, 실로 희한한 감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이 일제통치의 과거 시기와 그 이후에도 인민과 평화를 위한 한 길에서 함께 걸어 왔기 때문이다. 작가의 필치는 이로부터 자연 감동적인 서정으로 가득 찼다. 이 작품이 서정적 단편으로서의 특색을 가지는 것이 우연하지 않다.

한편, 김선려·리근실의 조선문학사 에서는 ‘국제주의적 전우애를 주제로 하는 우수한 단편소설’로서 윤시철의 <나의 옛 친우> 외에 리윤영의 <전우> (1953), 박태민의 <돌아온 전우> 등의 작품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조선 인민군 용사들과

중국 인민지원군 용사들 사이에 맺어진 우정이 결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던 항일 혁명투쟁시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것은 오늘 피 어린 전쟁행정에서 더욱 깊이 있고 열렬한 혈연적 우정으로 공고 발전되고 있다는 사상을 생활적으로 감명깊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평가는 필자가 실제로 찾아본 작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박웅걸의 <형제> (1953)와 이태준의 <고귀한 사람들> (1951) 등이 그것으로, 여기에서는 이들 두 작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박웅걸의 <형제>는 북한 인민군과 중국 지원군이 한 형제와 같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운전사 김태훈은 ‘적 항공기’의 기총사격 때문에 적재함에 실은 휘발유통에 불이 붙자 불붙은 휘발유통을 젖은 모포로 몸을 가리고 어깨로 차에서 밀어냄으로써 자신의 차를 구하였으나 화상으로 눈이 멀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중국 지원군 신즈밍이 적기 공습의 위험을 무릅쓰고 차를 몰고 와 김태훈을 구해준다. 그리고 신즈밍은 고마워하는 김태훈에게 “중국 오성기에는 조선 사람의 피도 섞여 있다”(p.240)고 말한다. 과거 조선의용군이 중국 혁명에 참가하여 중국을 도와주었던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항일혁명투쟁 시기부터 이루어져 온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태준의 <고귀한 사람들>에서는 중국 지원병 진평수와 간호장 김옥실의 형상화를 통해 ‘적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동시에 ‘혁명적 낙관주의’ 및 ‘고상한 국제주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분대장과 박오철 대원은 정찰 도중 중국 지원병 한 명이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입원시킨다. 이 병원의 간호장인 김옥실은 이 중국 지원병이 과거 자신을 대신하여 고급 군관에게 헌혈해 준 진평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를 위해 수혈하여 주고 열심히 간호한다. 그러던 중 ‘적’ 제트기의 공습이 있게 된다. 적십자 표시가 분명히 있음에도 ‘적’ 비행기는 무차별로 폭격을 하여 병원은 불바다가 된다. 그녀는 이러한 폭격 속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환자들을 피신시키다가, 여전히 가사 상태에 있는 진평수를 업고 피신하던 중 총격을 당해 죽게 된다. 이후 의식을 회복한 진평수는 박오철로부터 그간의 소식을 알게 되고 슬퍼하면서 자신이 “중국인민해방군을 또 당을 비로소 이해하게”(p.47)된 것도 김옥실의 고귀한 삶 때문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러자 박오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건 훌륭한 인연이었구려! 동무들은 또 오늘 우리 조선에서 그렇지 않소? 동무들은 전쟁으로 우리를 돕는 것은 물론, 술한 조선 사람들이 동무들 때문에 또 고상한 국제주의로 무장되어 있는거요! 앞으로 우리 시대는 진정 평화와 행복의 세상일거요!」

이와 같은 박오철의 말은 이 작품이 보여주고자 한 목적의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혁명적 라관주의’ 및 ‘국제주의 켄마’를 형상할 것을 강조하는 당 문예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장면 묘사에서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진평수도 감격에 넘쳐 붉어진 입술을 가벼이 떨기만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마즌 편 벽면을 우러러 보았다. 자기들의 수령의 초상을 더듬고 그 다음 한 가운데 걸린 쓰딸린 대원수의 초상 위에서 그들의 희망에 타는 시선들은 초점이 엉키었다.

그런데 북한문학사에서는 이 작품이 “조.중 친선이 가지는 고상한 국제주의 정신을 중국 지원군 청년과 조선 간호장 처녀와의 저속하고 색정적인 련에 감정으로 대치시켜 놓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작품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악의적 해석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종파주의 잔재와 투쟁할 것’을 강조한 김일성의 지시와 이에 따른 정적들의 숙청사건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전쟁기 북한소설에서는 동일한 주제 부각을 위해 동일한 패턴으로 중국군을 형상화하고 있다. ‘중국 지원군’ 또는 ‘중국 인민지원군’은 북한의 인민군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제와 같은 존재이며, 이러한 형제 관계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이루어져 온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군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식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당 문예정책에 입각해 창작하는 북한 문학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 Ⅲ. 타국가와의 충돌 경험 재현 양상

#### 1. 남한과 중국

한국전쟁기 남한 소설에서 중국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룬 작품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중국군의 참전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유주현의 <영(嶺)> (창공, 1952.3)과 박연희의 <무기와 인간>

( 해병과상륙 , 계문사, 1953.3) 등은 다분히 문제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주현의 <영>에서는 주인공 형숙이 두 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 곳곳에 비행기 공습으로 죽은 중공군의 시체가 나뒹굴고, 까마귀는 시체를 파먹다가 산 사람에게까지 달려든다는 이야기를 통해 전쟁기 현실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놈들(까마귀)에게는 중공군이고 피난민이고 없었다. 모두가 같은 고깃덩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전쟁 자체를 상징하는 ‘까마귀’를 통해 전쟁에서는 이념의 차이나 적과 동지의 구분이 하등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연희의 <무기와 인간>은 전쟁 당시 치열했던 도솔산 전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가운데 중공군이 전투 중에 인민군 소년병을 겁탈하려다가 총에 맞아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란 주위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때에 있어서는 생리적으로 오는 발작이 노현된다는 것이 오히려 진실된 행위라고 믿어지기까지도 하였다.”는 서술자의 설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작품에서의 중공군은 맞서 싸워야 할 ‘적’이라기보다 치열한 전장에서도 성적 본능을 드러내는 한 인간으로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한 소설은 대부분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된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 상황을 통해 중국군을 부정적으로 재현하였으나, 일부 작품들은 중국군이 적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개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실적 혹은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중국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남한의 작품들은 한편으로는 ‘문학의 무기화론’에 따라 반공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기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 혹은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 2. 북한과 미국

안함광의 조선문학사 와 조선문학통사 에서는 전쟁 시기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문학 예술가들에게 ‘미제국주의자의 만행을 역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광범하고도 심각하게 취재하여 전체 인민의 적개심을 더욱 고취하며 조국애를 더욱 앙양시켜주는 고상한 형상물들을 왕성히 창조’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한설야의 <승냥이> (1951)와 리북명의 <악마> (1951) 등을 이러한 주제의 대표작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김선려·리근실의 *조선문학사*에서는 전쟁 이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리복명의 <악마> 대신에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한 유항림의 <누가 모르랴> (1951), 김형교의 <뺨다귀 장군> (1953)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전쟁기 현실을 다룬 작품을 예로 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한국전쟁기에 발표된 대부분의 북한 소설은 미군의 야수성과 악마성을 형상화하면서 미군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는 바, 다른 작품에서는 미군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전쟁기 북한의 대표 작가인 한설야는 여러 작품을 통해 미군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다. <전별> (1951)에서는 내 부모 형제의 조국을 미군이 짓밟고 있기에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작품에서는 미군들이 “질경질경 껌을 씹고 과자를 먹는 놈의 개 이빠디 같은 잇발”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의 어머니와 누나의 가슴에 칼을”(p.405) 박거나, “젊은 여자들만 보면 잡아가는 놈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황초령> (1952)에서는 후퇴 후 반격에 나선 시기인 1951년 초 황초령 부근 병원에 근무하는 복실이라는 간호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작품은 황초령이 “미국 제1해병사단을 장진호반서부터 안팎 팔십리 황초령 골짜기에 이르는 사이의 깊고 험한 산간에서 일만이천명이나 몰살”(p.494)시킨 곳임을 작품 곳곳에서 강조한다. 그리고 복실 등의 애국적 활동을 찬양하는 동시에 미국인과 미군의 잔인성과 비겁함을 비판한다. “두 눈알이 튀어나온 미군 장교놈의 머자귀 같은 낮바대기”(p.501), 소학교에 유산탄을 뿌려 소년에게 중상을 입히고, 민간인을 기총소사로 죽이는 미군인 비행사들, 승냥이를 연상시키는 미국 선교사 부인 ‘맥가’, “하루밤 사이에 조선군과 중공군에게 말짱 죽음을 내려달라고”(p.517) 기도하는 미군 연대장 부인, 조금만 위협하면 살려달라는 의미에서 ‘포로’를 외치는 미군의 비겁한 모습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장편 <<대동강>>에서는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점령된 평양의 모습과 북한 인쇄 공장 노동자들의 투쟁 활동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도 미군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미군들로 인해 평양의 거리는 “마치 깡그의 런습장”(p.10)처럼 되었고, 미군 찢차의 질주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해한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 날 미군 찢차의 질주로 네 댕 살 된 어린 아이가 죽게 된다. 또 미군 중위

해리슨은 사령부 민정부장 스미쓰가 가장 신임하는 부하로서 수많은 조선 인민을 학살하였으며, 그 공으로 평양에 전임해 와서도 역시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해리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키 크고 목이 황새목 같은데 그 우에 코 끝이 뾰족하게 내민 조그만 대가리를 이고 있었다. 얼른 보기에 소방대 곡괭이 같이 생긴 위인이었다.

이처럼 미군의 생김새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이 작품은 미군들이 ‘인민군대와 중국 지원군에게 포위 섬멸되어 많은 시체를 유기하고 패주’하였음을 보여주면서 3부작을 완결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전쟁기 한철야의 작품들은 짐승과 같은 미군의 잔학성을 폭로함으로써 적개심을 고취하고, 미군이 겁쟁이임을 강조함으로써 인민과 인민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의 부정적인 모습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박웅걸은 <상급전화수> (1952), <나의 고지> (1952) 등의 작품을 통해 미군을 ‘승냥이’, ‘짐승 같은 원쑤’ 등으로 묘사하면서, 미군들이 행복했던 고향을 잣더미로 만들었기에 이들과 싸워 이겨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공병소대장> (1951.7)에서는 김진석 소대장의 용감성과 부하 통솔 능력을 찬양하면서, 피난 여성을 죽인 미군 앰피의 잔인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굴 안에는 수많은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갈기갈기 찢어진 치마폭들과 사방에 흩어져 있는 짐 보통이로 보아 그들은 피난을 가던 마을 녀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지불이 콘크리트 벽 쪽으로 비치자 소대장은 거기서 두 눈을 둥그렇게 뜬 채 몸을 벽에 기대고 있는 녀인을 발견했다. 전지불을 바싹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 녀인도 역시 죽었다는 것을 알아 채었다. 두 손아귀에는 무슨 형겔 쪼박지를 틀어쥐고 있었다. 소대장은 그것이 미국놈들이 입는 잠바의 옷자락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슭에 흰 선을 두 줄 긋고 엠.피라고 영문자로 쓴 철갑모가 하나 뒹굴고 있었다.

윤세중은 <구대원과 신대원> (1952)에서 40여차의 큰 전투를 치른 노련한 구전투원 장수철과 귀엽고 영리하고 씩씩한 신대원 박성구의 모습을 통해 전사의 용감성을 보여주면서 미군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낸다. 미군을 ‘독사같이 징그러운 미제놈들’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을 겁쟁이로 묘사하고 있다.

미제졸병놈들은 실패와 죽음만이 있는 고지 돌격전을 그래도 강요당하고 있던 관인데 지휘관이 죽어넘어진 것을 알자 이 기회라고 분산하여 뛰었다. 성구는 총알에 여유가 있는 한 한 놈이라도 더 잡으려고 바위에 붙어 더 사격을 계속하였다.

박태민의 <벼랑에서> (1952)는 포로가 된 운전수 원주의 영웅적 희생 행위를 보여주면서, 미군의 잔인성을 폭로한다. 주인공 원주의 어머니는 ‘미국놈들’의 기총소사에 숨졌으며, 폭격에 의해 아내와 딸이 죽고 집은 폐허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군 엠피 장교의 인민 학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광장은 어린 것들의 애절한 울음소리와 어머니들의 통곡으로 벌쩍 뒤덮인다. 그러자 례의 미군 <<엠.피>>가 안경을 벗어들며 손을 든다. 그에 호응하듯 일제히 기관총들이 어린 것들을 겨누어 불을 뿜는다. 어린 것들은 울음을 머금은 채 런달아 광장우에 쓰러진다. 어머니들의 불을 토하는듯한 울부짖음과 어린 것들의 비명이 처절하게 광장우에 울린다.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미군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재현하면서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다. 리상현의 <아들은 전선에 있다> (1952)에서는 “얼굴이 발바리처럼 생긴 미제 장교 놈”과, 새벽에 여자를 겁탈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고는 그 화풀이로 죄명을 달아 치안대로 끌고 가는 ‘미제졸병놈’ 등의 미군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황건의 <불타는 섬> (1952)에서는 1950년 9월 12일 월미도를 배경으로 인천상륙을 시도하는 미군들의 모습을 ‘흉측하고 가증스러운 물건, 선한 생명의 피를 요구하는 짐승’으로, 유헌림의 <소년 통신병> (1953)에서는 미군을 “야간전투를 무서워하는 놈”으로, 김만선의 <사냥군> (1951)에서는 민간인 집을 폭격하고 특히 아이들과 부녀자를 학살하는 살인마로, 김영석의 <화식병> (1951)에서는 “잔인한 원숭이 같이 이발을 내밀고 달려드는 추악한 미국놈”, ‘패주한 미국 강도군’으로, 류근순의 <회신속에서> (1951)는 ‘미국 승냥이 새끼들’이라고 욕하면서, “공장을 불지르고 우리 학교랑 마사는 원수놈들”로 묘사함으로써 미군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군에 대한 증오심은 이태준의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대사관> (1951.4)에서는 미군 비행사와 사저수의 형상화를 통해 ‘미군의 만행과 비굴함’을 폭로하고 있다. 비행기가 포탄에 맞아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미군 비행사 록크와 사저수 험버트는 북한군에 의하여 붙잡힌다. 이들은 붙잡히자마자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달라고 한다. 그러자 정치부 군관과 연대장은 통신병에게 이들을 “사단으로부터 연락 군관이 갈

때까지는 잘 맡아두었다가 보내라는 지시”(p.23)에 따라 가두어 둘 것을 명령한다. 그는 명령에 따라 이들을 피비린내가 나는 화약고로 데려간다. 이 화약고는 남한 경찰들이 경찰서 유치장이 파괴되자, “검속한 조선 애국자들의 가족을 가두었”(p.25)다가, 퇴각하기 전 이들을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해치웠던 곳이다. 이에 미군들은 자신들을 죽일 것으로 오인하여 살려달라고 비굴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자 통신병은 이러한 미군들을 향해 이 화약고가 “너희 미국 대사관”(p.28)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친다는 것이다.

너희 놈들을 우리가 질근질근 씹어먹기루 씨원혈 줄 아니? 그렇지만 국제공범인가 뭔가 때문에 혈 수 없이 죽이진 않는 줄 알아라.

이처럼 한국전쟁기 북한소설은 미군이 야수처럼 잔인하지만 알고 보면 겁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군은 잔인한 짐승과 같기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하며, 겁쟁이이기에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미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한 노력을 엿볼 수 있으나, 다분히 도식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역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적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할 것을 요구한 전시 하 당 문예정책으로 인한 주제의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

#### IV. 결론

타국가와의 협력과 충돌의 경험은 한국전쟁기에 발표된 남북한 소설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점에 착목하여 한국전쟁기에 남한과 북한이 미국, 중국 등과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충돌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에서 어떻게 재현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남한 소설 중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군 혹은 중국군을 비중 있게 다룬 작품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혹은 중국군에 대한 남한 소설의 서술태도는 매우 다양하다. 작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작품들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국을 고마운 나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유학하고 싶은 선진국 등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일부 다른 작품들은 성매매 여성을 상대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미군의 모습을 재현하기도 한다. 중국에 대한 태도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일부 남한 소설은 남북통일을 좌절시키고 피난의 고통을 겪게 한 중국군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부 다른 작품들은 휴머니즘의 측면에서 중국군 역시 다 같은 인간이며, 전쟁의 피해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 소설은 매우 구체적으로 미군, 중국군과의 충돌 혹은 협력의 경험을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소설은 남한 소설과 달리 매우 도식적이다. 미군은 모두 부정적 인물로 등장한다. 미군은 짐승같이 잔인한 살인자이면서 비겁한 겁쟁이로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군은 모두 긍정적 인물로 등장한다. 중국군은 ‘중국(인민)지원군’으로서 북한의 인민군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제와 같은 존재이며, 이러한 형제 관계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이루어져 온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는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과 북한이 미국 또는 중국과 협력 혹은 충돌의 경험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소설은 미군과 중국군 등의 재현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전쟁 당시 작가들의 글쓰기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강력하였음은 이러한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작품

- 곽하신, <여비>, 수도평론, 1953.6.  
김동리, <풍우 속의 인정>, 해병과 상륙, 계문사, 1953.  
김송, <<영원히 사는 것>>, 백영사, 1952.  
박연희, <무기와 인간>, 해병과 상륙, 계문사, 1953.  
박연희, <소년과 「메리」라는 개>, 문화세계, 1953.7.  
박영준, <<애정의 계곡>>, 삼성사, 1953.  
박영준, <<열풍>>, 세문사, 1954.  
박용걸, 상급전화수,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안수길, <갱생기>, 해병과 상륙, 계문사, 1953.  
안수길, <고향>, 제3인간형, 을유문화사, 1954.  
유주현, <기상도>, 전선문학, 1953.4.  
이무영, <0형의 인간>, 신천지, 1953.6.  
이무영, <범선에의 길>, 신조, 1951.7.  
이태준, 고향길 재일본 조선인 교육자 동맹, 1952.

장덕조, <<십자로>>, 문성당, 1953.

최인옥, <저류>, 자유세계, 1952.8.

한설야, <<대동강>>,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분대장과 전사, 금성청년출판사, 1977.

승리자들, 문예출판사, 1976.

조선단편집 2, 문예출판사, 1978.

조선문학사 작품선집 2, 학우서방, 1982.

한설야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 논저

김선려, 리근실, 조선문학사 11, 과학백과종합출판사, 1994, 147쪽.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21-26쪽.

문학과 사상연구회 편, 한설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0, 223쪽.

박명립,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463쪽.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통사, 사회과학출판사, 1959, 264쪽.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135-137쪽.

안함광, 「1951년도 문학 창조의 성과와 전망」, 인민, 1952.1

안함광, 조선문학사, 연변교육출판사, 1956, 492쪽.

이선영, 김병민, 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 159쪽.

최장집, 「한국전쟁에 대한 하나의 이해」, 한국전쟁 연구, 태암, 1990, 352쪽.

한완상, 박명규, 「한국사회연구와 한국전쟁연구」,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1992.

和田春樹, 서동만(역),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158-165쪽.